광주대 'RISE' 추진단 출범 본격 가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노선식 총괄단장 등 교직원 17명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조성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최근 학교 행정관 3층 스마트강의실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 수립 의지를 다졌다.

광주대는 이날 발대식에서 노선식(산학협력단장) 총괄 단장을 비롯해 17명의 교직원들로 구성된 TF팀(대학 비전 및 체계, 인재 SKILL UP, 기업 VALUE UP, 지역사회 GROW UP, 대학 RISE UP, 성과관리 예산)을 꾸리고, 대학 혁신을 통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RISE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국정과제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의 하나로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라이즈'는 중앙부처가 담당하던 대학 지원체제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체계이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50% 이상을 시도에 지원한다.

김동진 총장은 "광주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가정신 대학'을 모토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학의 역할을 다하고, 조직 구성원의 성장과 성공은 물론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광주대가 이름값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 초빙된 광주광정 교육정책관실 RISE 준비단 송윤태 선임사무관은 광주대 구성원들에게 RISE 계획서 변경(안) 설명을 통해 광주시의 투자 환경 및 지역특화산업 등 여건을 비롯해 ▲RISE 기본계획과 추진방향, 비전 ▲4UP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향후 일정 및 대학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광주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TF팀의 총괄단장은 노선식 AI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맡고 대학 비전 및 체계는 정건용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았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7개 라이즈 시범지역(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을 선정,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하고 대학이 지역의 혁신을 선도해 나아가기 위해 대학과 지역의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최근 학교 행정관 3층 스마트강의실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광주대 제공〉

글로컬대학30 선정 위해 빛고을연합대학 뭉쳤다

연합·통합 대학 총동창회 간담회

광주 지역 빛고을연합대학 총동창회가 글로컬대학 30 지정과 대학의 지속발전에 힘을 모으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조선대학교 총동창회는 최근 글로컬대학 30 공동 신청 대학교인 5+2 연합·통합대학(조선대·광주대·광주여대·남부대·송원대·조선이공대·조선간호대) 총동창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Glocal,Global+Local)대학 30'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육성책의 하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 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는 조선대 정효성 총동창회장, 광주대 최주남 총동창회장, 남부대 김태훈 대표, 송원대 고금순 총동창회장, 조선이공대 장금석 사무총장, 조선간호대 김윤희 총동창회장, 조선대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총동창회 지원 협력 방안으로는 '빛고을연합대학 총동창회 협의체 결성 및 정기 모임 개최' '각 대학 총동창회 글로컬대학30 발전기금 모금' '광주시장 등 기관장 면담 추진' '지역사회 여론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글로컬대학30 연합·통합 대학교 총동창회 간담회. 〈조선대 제공〉

정효성 총동창회장은 "7개 대학 동문의 숫자가 47만에 달한다. 서로 상생하기 위해 힘을 모으면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긍정적인 여론을 확산할 수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사립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합대학의 총동창회가 나서서 글로컬대학에 선정될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조선대학교 등 연합대학은 지난 3월 22일에 '빛고을 연합캠퍼스 구축을 통해 거점 지역대학으로의 대도약과 글로컬 상생가치 실현'을 내세운 혁신기획서를 제출했고, 지난 11일에는 대면심사를 진행했다. 예비지정 결과는 이번 주에 공고될 예정이고, 예비 지정 시 본사업계획서는 6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 진행

1교 1독서 프로그램 운영…학교 맞춤형 1180개 프로그램 예정

광주시교육청의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가 학교에 뿌리내리고 있다.

'다시 책으로'는 시교육청이 역점 추진하는 독서교육 내실화 사업으로, 현재 광주지역 전체 학교에서 1교 1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322개 전체 학교에서 최소 1개의 독서 교육 프로그램 계획이 수립됐으며 학교 특성 맞춘 총 1180개의 독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제동행 아침 독서 ▲매 수업 시간을 여는 '5분 독서' ▲독서 우수학급 시상 ▲학부모회 주관 책 읽어주는 선생님 ▲思e 좋은 만남!(그림책 및 전자도서관 활용수업) ▲독서논술토론한마당 ▲수업을 살리는 독서 ▲온책 깊이읽기 등 각양각색 프로그램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학교 예산에서 관련 예산 편성을 기존 1%에서 2%로 늘려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서구입비(표준교육비)로 34억원, 독서교육 운영비 13억원이 편성됐다. 늘어난 독서 예산을 통해 풍부한 도서 자원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책을 읽으며 필요한 능력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교육청은 평가하고 있다.

올해 시교육청은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 전개를 위해 관내 전체 학교 1교 1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학, 지자체, 직속 도서관, 교육지원청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독서교육 내실화 관련 교원 연수 및 현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서교육 운영 우수학교 선정 및 포상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각 학교에서 다양한 독서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데에서 학생들의 독서 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원 연수 및 현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서교육 운영 우수학교 선정 및 포상 등 독서 문화의 활성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행기관 선정

전남 거주 유학생·외국인 근로자·다문화가정 주민 편의 개선

동신대가 한국어능력시험시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동신대 대신국제관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동신대 제공〉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국립국제교육원 지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에 거주하는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주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 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활용 능력을 인증하는 국가 공인시험이다.

K-문화 확산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 증대 분위기 속에, 다각적인 유학생 경쟁력 제고 방안이 시행되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비자 전환시 한국어 능력이 의무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토픽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토픽 기관 선정에 따라 동신대는 오는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 동안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PBT 기반 한국어능력시험을 운영하게 된다. 연 6회, 1회당 500명 가량을 수용할 예정이다.

동신대는 안전한 분위기 속에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한국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동신대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 1천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캠퍼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았으며 한국어교원학과, 국제한국어학과를 개설해 한국어 보급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SINCE 1952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無 착색료 감미료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